

## 18세기 韓·中 人物記事 연구

- 절열(節烈)을 집중 취재한 권상일(權相一)과  
주균(朱筠)의 작품을 중심으로\*

정난영\*\*

### <차례>

1. 머리말
2. 절열을 기사화 한 兩國의 작품 개괄
3. 권相一과 朱筠의 절열 형상화 양상
  - 1) 誠心의 진정성 강조 - 권상일의 경우
  - 2) 직분 수행의 의지 力說 - 주균의 경우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후기의 인물기사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조선후기 인물기사가 다양한 변화를 보인 18세기에 한·중의 문인인 권상일과 주균은 절·열을 집중적으로 취재하였는데, 각각의 작품군은 절열을 기록한 각국의 인물기사의 특징을 대표하고 있다.

권상일의 인물기사는 모두 병에 걸려 남편이 죽은 후 남편을 따라 스스로 세상을 등진 여인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대상인물의 슬픔을 극대화하여 서술함으로써, 그들의 죽음이 유교가치관의 평면적 결과물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眞情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음을 강조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주균 작품의 경우는 권상일과는 달리 烈行과 節行이 혼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부인으로서의 직분 수행에 대한 인물의 의지가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9379)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과 강사

장면을 극적으로 구성하거나, 비현실적인 기이한 현상에 주목하고, 맡은 바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으로 구현되고 있다.

권상일의 작품이 진정성을 강조하였던 것은 여성의 지조 수호를 ‘덕목의 발현’으로 본 데서 기인한다. 반면 주균이 인물의 의지를 강조적으로 보여준 것은 여성의 지조 수호라는 행동 양식을 ‘도리의 실현’의 차원에서 바라본 결과이다.

한편 권상일을 위시한 이 시기 우리나라의 절열에 관한 작품들은 모두 목숨을 버린 썩을 숭양했던 기존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이는 절행의 가치도 인정하는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인물전이나 중국의 인물기사와는 다른 면모이다. 또한 이는 18세기 한국의 인물기사가 인물·경험·서술 등의 측면에서 다채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양상이다. 결국 이 시기 한국의 인물기사는 부인으로서의 행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선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기사, 인물기사, 節婦, 열녀, 권상일, 주균, 덕목, 도리

## 1. 머리말

본고는 한문산문 문체 중 하나인 협의로서의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문체로서의 기사’<sup>1)</sup>는 16세기에 등장하였는데, 처음에는 어떠한 일[事]의始終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춘 事蹟記事가 주로 창작되다가, 17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하여 한 인물의 경험을 기록한 人物記事가 집중적으로 산출되었다.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 인물기사는 다양한 면모를 보이며 20세기 초반까지 그 명맥을 이어갔다.

이러한 인물기사의 역사에서 보면 18세기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기록의 중심점이 ‘인물’로 완전히 이동하였으며, 기존의 작품들과는 다른 변화

1) 문체로서의 기사 및 인물기사의 자세한 정의와 특성, 전개양상 등은 정난영, 「朝鮮後期 人物記事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2~42쪽 참조.

의 양상이 감지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동원된 인물들의 신분이 하인·승려·촌민·기생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기인·예술인 등의 특정한 기질과 독특한 면모를 드러내는 데에 집중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람·표류·복수 등의 특이한 경험과 괴물이나 인격화된 동물과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에 주목한 작품들도 발견된다. 또한 서사화를 통해 흥미성을 부각하거나, 대상인물의 경험을 서술하기보다는 작가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에 중점을 둔 의론성이 짙은 작품들도 보인다. 기사의 초점이 인물로 옮겨진 후 취재대상의 특성, 경험의 색채, 서술방식 등의 측면에서 다채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물기사의 이러한 변화는 과연 우리 문학사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인가? 같은 시기, 중국의 여러 문집에서도 인물기사가 종종 발견된다. 하지만 중국 측의 인물기사는 아직 우리나라 연구에서 대상화 된 적이 없기에 그 대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이 시기 중국의 인물기사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지, 양국의 작품이 지닌 특성은 각각 어떠한지에 대한 대답을 선뜻 내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 기사 및 인물기사의 경우, 그동안 적지 않는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sup>2)</sup>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그 대상이 우리나라 작품에만 한정되

2)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혜숙, 「傳·書事(記事)·野談의 대비적 고찰-상호 연관성과 관련하여」, 『새터 姜漢永 教授 古稀紀念 韓國 판소리·古典文學研究』, 새터 姜漢永 教授 古稀紀念 論文集 刊行 委員會, 1983, 595~611쪽; 진재교,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 韓國 漢文敍事樣式의 層位와 變略 - 傳, 野談, 記事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0, 대동문화연구원, 2002, 101~135쪽; 조창록, 「朝鮮後期 '記事'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65쪽; 「記事의 양식적 특성과 작품 세계」,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7~26쪽; 정환국, 「조선후기 人物記事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29, 한국한문학회, 2002, 291~320쪽; 손혜리, 「연경재(硯經齋) 성해응(成海應)의 인물기사 연구-‘충렬’의 드러남과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24, 민족문학사학회, 2004, 216~241쪽; 정난영, 「韓中 人物記事의 한 局面-‘난리’를 기사화한 丁若鏞과 毛奇齡의 경우-」, 『열상고전연구』 38, 열상고전연구회, 2013, 287~322쪽; 정난영(2020), 위의 논문, 1~227쪽.

어 있기에 그 성과의 결과들이 기사라는 문체가 갖는 보편적인 양상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특수한 상황인가에 대한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양국의 18세기 인물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집해야 할 작품의 범위는 인물기사를 남긴 문인 중 17세기에 태어나 18세기를 10년 이상 살았던 경우부터 18세기 말에 태어나 해당 시기를 20년 이상 살았던 작가의 창작물을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이 기준을 통해 수집된 각국의 18세기 인물기사는 한국은 총 129편, 중국은 총 102편이다.<sup>3)</sup>

그런데 이 작품들을 검토하면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8세기 작품 총 129편 중 節烈을 이룩한 인물을 기록한 작품은 단 11편뿐이라는 점이다. 이와 달리 총 102편의 중국 작품 중 절열에 주목한 편수는 19편이다. 비율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약 8%, 중국은 약 18%로, 우리나라에 비해 중국의 인물기사가 여성의 정절에 더욱 착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절열에 대한 양국의 관심의 정도는 다르지만, 그 중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절열의 취재에 몰두한 문인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후기의 權相一(1679~1759)은 총4편의 인물기사를 지었는데, 4편 모두 烈女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나라 朱筠(1729~1781)의 문집에는 총8편의 인물기사가 실려 있는데, 6편이 節婦 및 열녀에 관한 것이다.<sup>4)</sup> 이 시기에 양국에서

3) 정리하면, 卒年이 1710년 이상부터 生年이 1780년까지인 문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는 18세기에 작문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작가를 소급하여 이 시기의 작품을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세운 기준이다. 이렇게 수집한 작품들 중 기록 시기가 19세기로 언급된 8편은 제외였다.

또한, 중국의 작품은 『四庫全書』와 『續修四庫全書』를 검토하여 산정하였다. 이 전서 중 해당 시기를 살았던 문인의 문집이 실린 부분을 살펴 작품을 발굴하였는데, 그 결과 『續修四庫全書』 1418~1496권에서 102편의 작품이 수합되었다.

4) 주권의 문집인 『筒河文鈔』와 『筒河文集』에 수록된 인물기사는 총 14편이나, 그 중

여성의 정절에 몰두한 사람은 각각 권상일과 주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즈음 조선에서는 여성의 정절 수호 방식에 절행을 포괄하며 이를 긍정하는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또한 인물기사는 18세기에 들어 다양한 변주를 보이며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따라서 여인의 정절 수호에 주목한 작품들은 이러한 인물기사의 변화들이 당대의 사회적 인식과 맥을 같이 한 데서 비롯된 것인지, 그 원인과 변화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단초인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절열을 성취한 여성의 일화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던 두 문인의 작품들을 비교·분석하여 18세기 인물기사 지형도의 일부분을 가늠해 보려 한다. 이는 앞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첫 계단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그 결과는 인물기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체화하는 데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2. 節烈을 기사화 한 兩國의 작품 개괄

앞서 언급했듯이, 18세기 우리나라 인물기사 총 129편 중 절열을 취재한 기사는 11편, 중국은 총 102편 중 19편이 절열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작품을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1〉 節烈을 형상화 한 18세기 한국 인물기사 작품 목록

	작가 및 작품	신분	열/절여부	성혼 전/후 여부	의론 성격
1	李載亨 〈記訓戎鎭婢李娘事〉	노비	열	성혼	예찬
2	李夏坤 〈書貞女尙娘事〉	일반백성	열	성혼	예찬
3	權相一 〈朴烈婦記事〉	중인	열	성혼	X

6편은 동일 작품을 제목만 약간 달리하여 실거나 똑같은 제목 하에 중복 편재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주균의 인물기사 편수는 중복된 이 6편을 제한 8편으로 볼 수 있다.

4	權相一〈裴烈婦記事〉	양반	열	성혼	X
5	權相一〈烈婦許氏記事〉	양반	열	성혼	X
6	權相一〈烈婦高氏記事〉	X	열	성혼	X
7	李家煥〈記趙烈女事〉	양반	열	전	사건분석
8	洪爽周〈記連山烈婦事〉	중인	열	성혼	자기고백
9	成海應〈書烈女宋氏事〉	양반	열	성혼	예찬
10	成海應〈書李節婦事〉	양반	절	성혼	예찬
11	成海應〈書柴川朴烈婦事〉	일반백성	열	성혼	비판 및 행동분석

〈표2〉 節烈을 형상화 한 18세기 중국 인물기사 작품 목록

	작가 및 작품	신분	열/절여부	성혼 전/후 여부	의론 성격
1	方苞撰〈書萬烈婦某氏事〉	종	열	후	예찬
2	劉大槐〈書汪節婦事〉	양반	절	후	예찬
3	奎祖望〈記李烈婦事〉	양반	열	후	예찬
4	王元啓〈書徐貞女事〉	X	절	전	X
5	程晉芳〈書吳貞女事〉	양반	열	전	예법정리
6	錢大昕〈記湯烈女事〉	X	열	전	예법정리 및 예찬
7	朱筠〈書羅烈婦李事〉	양반	열	후	X
8	朱筠〈書烈婦景事〉	양반	열	후	X
9	朱筠〈書趙王氏事〉	첩	절	후	X
10	朱筠〈書蕭山汪氏二節婦事〉	양반	절	후	X
11	朱筠〈書婺源王吳節婦事〉	일반백성	절	후	X
12	朱筠〈張烈婦紀事〉	일반백성	열	후	X
13	江濬源〈記鄭節婦胡氏事〉	양반	절	후	X
14	秦瀛〈書支貞女事〉	일반백성	열	전	예찬
15	趙懷玉〈書袁烈婦死事〉	X	열	후	예찬
16	莊述祖〈書邢節婦事〉	일반백성	절	후	예찬
17	孫原湘〈書河南濬縣邢烈婦事〉	X	열	후	X
18	李兆洛〈書顧氏事〉	X	절	후	X
19	陳壽祺〈記劉貞節事〉	양반	절	전	X

우선 취재 대상의 신분을 보면, 우리나라는 양반 5편, 중인 2편, 일반

백성 2편, 노비 1편, 신분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1편으로, 양반 여성의 절열의 행실을 드러내는 데에 조금 더 치중하고 있다. 중국은 양반 8편, 일반 백성 4편, 중·첩·기생 등이 2편이며, 신분을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5편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양반층의 행실을 기록한 작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분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 역시 적지 않다. 이는 절열을 행한 인물을 선정하고 그 행실을 기록하는 데에 우리나라보다는 대상의 신분이 덜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점은 節과 烈의 비중이다. 주지하다시피, 節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가면서 지조와 순결을 지켜낸 경우를, 烈은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그것을 지킨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를 토대로 작품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 양국의 절과 열에 대한 관심은 확연히 다르다.

우리나라는 11개의 작품 중 10편이 烈行을 이룩한 인물에 관한 기록이고, 成海應의 〈書李節婦事〉만이 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명말 청초시기의 명나라 여인 이야기로, 節行家체 보다는 인물이 견지했던 명나라에 대한 의리 수호를 선명히 하는 데에 서술의 초점이 놓여 있다.<sup>5)</sup> 이와 달리 중국의 작품은 열행 10편, 절행 9편으로 두 행실의 비중이 균등한 양상을 보인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부인으로서의 정절 수호의 도리가 언제부터 인정되는지, 그 始點의 차이이다. 우리나라 11편의 작품 중 10편은 혼사를 이미 치르고 결혼 생활을 했던 부인들의 정절을 다루고 있다. 나머지 1편인 李家煥의 〈記趙烈女事〉는 아직 식을 올리기 전 납빙한 상태에서 상대가 다른 사람과 혼인했다는 소식을 듣고 버려졌다고 생각하여 자결을 한 처자

5) 成海應, 〈書李節婦事〉, 『研經齋全集』 卷33. “李節婦, 寧遠伯李成梁孫女也. ……及嫁李廷鰲, 廷鰲戰死無子, 節婦年十九, 自以公侯家女, 誓不再嫁. 及清人陷遼瀋, 兵民雜沓, 擇嫠婦與少壯無妻者, 爲妻. 節婦聞之, 卽毀容斷髮, 不食欲死. 一軍知, 不可強, 許其所願從. ……節婦之不嫁, 非徒守其志也, 蓋恥褻裘之賤也. 所依月桂, 必與節婦同志者歟?”

의 사건에 주목한 작품인데, 작자는 사건의 진상 분석과 자살 원인의 이견에 대한 반박을 사건의 서술보다 긴 편폭으로 개진하고 있다.<sup>6)</sup> 다시 말하면, <기조열녀사>는 혼인식을 치르기 전인데도 목숨을 버린 처자의 열행을 예찬하기 위한 작품이 아니다. 다른 사건에 연루된 데다 성혼 전 벌어진 일기기에 서술의 초점이 인물의 행동이 열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는 데에 놓여 있는 것이다.<sup>7)</sup>

반면, 중국은 19편 중 5편이 성혼 전인데도 절열을 이룩한 인물에 관한 작품이다. 그러나 여인의 행동 원인에 대한 분석에 치중한 <기조열녀사>와는 달리, 이 작품들은 사건 기록과 함께 성혼 전 남편이 죽었을 때 취해야 할 예법을 정리하거나,<sup>8)</sup> 그 행동을 예찬하고 있다.<sup>9)</sup> 또 성혼 전 남편이

6) 처지는 혼인 약속을 하기 전에 납치를 당했던 일로 그 순결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실 때문에 당시 처지는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순결을 의심받게 되었는데 죽은 것이 이미 혼인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작자는 사건의 실상을 요목조목 따진 후, 처자를烈女로 칭하고 있다.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그 순결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인의 죽음의 원인이 남편에게 버려진 데에 있다고 본 것이다. (李家煥, <記趙烈女事>, 『詩文』 卷1. “負在玄氏, 嫌路遠, 自請已婚耶? 負在重周, 金化近淮陽, 其人習玄氏, 而重周遠客, 即歸無與親, 必不右趙左玄, 而昌祚方自解說其言, 容有遷就, 一也. …… 玄氏納聘, 而烈女之死爲有名, 烈女之死有名, 而太守有遙祭之事, 此皆玄氏之所惡聞, 而昌祚所告, 恰無此兩事, 七也. …… 先生又斷之曰: “處子之死, 蓋欲自明其遇賊不污, 非直爲已婚.” 余亦竊以爲不然. 若是, 則當死於盜, 死事白之. …… 向使玄氏不他娶, 迎之入門, 固將爲婦以沒齒, 惡在其自明也? 烈女事有先生書, 自當垂之不朽.”)

7) 실로 이 사건은 成海應의 <書趙處子事>에도 기록되어 있다. 성해응은 이 작품에서 처자가 혼인도 하지 않았는데 목숨을 가볍게 버린 것은 도적에게 욕보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작품에서도 조처자의 죽음은 자신의 순결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한 烈行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8) 程晉芳, <書吳貞女事>, 『勉行堂文集』 卷4. “夫禮由情生, 有亡于禮之禮, 則亦有亡于情之情. 女未嫁而守貞, 用情雖過, 固賢人君子所亟許也. 至夫亡已久, 稅服, 無從王舅姑, 舅姑在堂, 則純素以入門, 終身不與采飾, 可也.” / 錢大昕, <記湯烈女事>, 『潛研堂文集』 卷22. “蓋女子笄而繫纓, 已有繫屬於人之義, 夫死, 斬衰而弔. 禮既不去其夫之名, 而且許其服, 婦之服三年之恩. 未成而繫屬之名, 已定如

죽었으나 끝까지 媿家를 건사한 여인의 일을 담은 王元啓의 〈書徐貞女事〉는 논평을 따로 하지 않고, 여인의 행동을 ‘義’라 칭송하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사건 서술에 함께 기록함<sup>10)</sup>으로써 그 節行을 예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성혼 전 인물들의 정절에 대한 의지도 절절로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의론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는 예찬 4편, 사건에 대한 비판 및 분석 2편,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심정 토로 1편, 없는 경우 4편으로 대상의 행동에 대한 작가의 의견이 비교적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예찬 5편, 예법 설명 3편, 없는 경우 12편으로 작가의 의견이 들어있지 않은 작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의론은 인물이 이룩한 節烈의 덕목을 예찬하거나 예법에 대해 정리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뉜다.

본래 기사는 의론이 섞인 경우 破體라 정의<sup>11)</sup>하는데, 중국은 인물의 행동에 의론을 개입하지 않는 기사의 기본 양식적 특성이 우리나라보다 잘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론의 내용도 비교적 단순한 양상을

是, 而爲之死, 雖過於禮, 而未悖乎?”

- 9) 秦瀛, 〈書支貞女事〉, 『小峴山人詩文集』卷1. “嗚呼! 貞女生農家, 非必有保姆之教, 而貞義激烈.” / 趙懷玉, 〈書袁烈婦死事〉, 『亦有生齋集』卷12. “予嘗讀歸熙甫〈書張貞女死事〉, 見其妙齡弱質所立卓卓, 如是, 輒太息泣下.” / 莊述祖, 〈書邢節婦事〉, 『珍執宦文鈔』卷7. “其與誦詩書, 以古道繩當世, 爲世詬病者固殊也, …… 嗚呼! 若邢嫗之苦節, 豈非出於其性者哉!”
- 10) 王元啓, 〈書徐貞女事〉, 『祇平居士集』卷23. “先是, 動死, 貧不能葬, 及貞女戚黨, 共欽其義, 議爲舉葬. 貞女曰: “夫有何德而煩人代葬? 若以我故是, 以節爲市, 不可.” 力却之. …… 及永培攜室, 歸自蜀, 益貧窶, 依於貞女. 尋卒, 爲營喪葬, 恤其遺孀, 郡人士, 尤義之.”
- 11) 金振邦, 『文章體裁辭典』,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6. “記體之一. 清吳曾祺『文體芻言』: ‘書事自始至終, 直書一事者. 此爲書事之正體, 若旁及他事, 及雜以議論者, 皆破體也. 其與碑志之體, 似之而實不同. 故入之雜記爲是. 凡曰書某事·書某人事則入之.’”(정난영(2020), 앞의 논문, 13쪽 재인용)

떠는 것을 보면,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작품에 작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살펴보았듯이, 절열에 대한 18세기 각국의 기록은 양자 간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 두 나라에서 지조를 수호한 여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한 權相一과 朱筠의 작품은 각각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 또 두 사람의 작품들은 당대 절열에 대한 인물기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두 작품군의 비교는 본고가가 출발한 애초의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 3. 權相一과 朱筠의 節烈 형상화 양상

#### 1) 誠心의 진정성 강조 - 권상일의 경우<sup>12)</sup>

權相一은 〈朴烈婦記事〉, 〈裴烈婦記事〉, 〈烈婦許氏記事〉, 〈烈婦高氏記事〉 등 총 4편의 인물 기사를 남겼는데, 모두 병에 걸려 남편이 죽은 후 남편을 따라 세상을 등진 여인들을 취재한 작품이다.

(가) 업무(業武) 차재흥(車載興)에게 시집갔는데, 재흥이 질병을 얻었다. 고질병이 10여 달 계속됐는데, 지극 정성으로 간호하고 분주히 다니며 눈물을 쏟았다. 사람들이 약을 알려주면 아무리 비싼 가격이어도 반드시 사서 썼다. 손수 독사를 잡아 회를 쳐서 바쳤고, 약취가 나는 음식도 모두 맛을 조금 보고 내어드리니, 보고서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치료를 할 수 없게 되자 염습을 하고 의복을 입혔으며, 모두 친히 정성껏 씻어냈다. 밤을 타서 독약을 마시고 시신

12) 권상일의 인물기사의 양상은 정난영(2020), 앞의 논문에서 분석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앞의 논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구체화·상세화하여 논지를 확장·재고찰하였음을 밝힌다.

을 안고서 죽었는데, 이때 나이가 34살이었다.<sup>13)</sup>

(나) 계사년(癸巳年, 1713) 겨울, 예달(禮達)이 위중한 병에 걸리자, 고씨는 옷을 입은 채로 목욕하고 머리를 빗고 세수하였으며, 밤에는 반드시 향을 피우고 하늘에 빌었고, 잠을 자지 않고 지낸 밤이 몇 달이나 되었다. 다음 해 봄,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자, 고씨는 야윌 만큼 슬퍼하며 절도를 넘었고, 가산을 기울여 상(喪)을 치렀다. 장례를 치르고 자결하려는 마음에 미음도 먹지 않아서 집안사람들이 밤낮으로 지켰다. 어느 날, 음식을 먹고 머리를 빗고 세수하고, 옷을 세탁하여 입으며 말했다. “운명이 기박하니, 한은 어쩔 수 없구나.” 집안사람들이 마음을 바꾼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점점 보호하는 것을 느슨하게 하였다. 이날 밤, 홀연 기운이 다하는 소리가 들려 놀라서 일어나 보니, 약그릇이 곁에 있었다.<sup>14)</sup>

(가), (나) 모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리자 정성을 다해 병간호를 하고 남편이 죽은 후 독약을 마셔 스스로 삶을 끝낸 여인들의 사연을 담고 있다. (가)의朴烈婦는 남편이 병에 걸리자 회복시키기 위해 아무리 비싼 약이어도 구해다 먹이고, 좋은 것이라면 자칫 자신이 위험해 질 수 있는 독사까지 직접 잡아 바친다. 그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자, 스스로 殮襲을 도맡아 장례를 치르다가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박열부가 남편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과 장례를

13) 權相一, 〈朴烈婦記事〉, 『清臺集』 卷10. “適業武車載興, 載興得疾, 沉痾十餘朔, 至誠救護, 奔走呼泣. 人指藥, 則雖重價, 必買用. 手捕毒蛇, 作鱸以供, 凡臭惡之物, 皆嘗味勸進, 見者無不感歎. 及至不救, 殮襲衣服, 皆親執精洗. 藥夜飲毒藥, 抱屍而死, 時年三十四.”

14) 權相一, 〈烈婦高氏記事〉, 『清臺集』 卷10. “癸巳冬, 禮達得病沉重, 高氏衣不解帶, 沐浴梳洗, 夜必焚香祝天, 不寐經夜者數月. 翌年春, 竟不起, 高氏哀毀踰節, 傾家治喪. 既殯, 意在自決, 藥飲亦不進, 家人晝夜看守. 一日, 飲食梳洗, 濯衣而着曰: “命數奇薄, 恨無奈何.” 家人幸其改心, 稍弛防護. 是夜半, 忽有氣盡聲響, 驚起視之, 惟藥器在側.”

치르는 데 보인 열성만이 아니다. 열부는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눈물을 보였으며, 자결하기 위해 독약을 마시고는 남편의 시신을 안고 죽는다. 이는 박열부의 烈行이 부인으로서의 도리를 넘어선 부부간의 사랑에서 기인한 행동임을 방증한다. 병든 남편에게 보인 지속적인 정성은 바로 부부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나)의 〈烈婦高氏記事〉에서는 (가)의 박열부처럼 열부가 직접 남편을 간호하는 모습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高氏는 몇 달 동안 언제든 남편에게 달려갈 수 있게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옷을 갖춰 입고 지냈으며, 매일 밤 남편의 병이 낫길 기원하며 잠도 자지 않고 지낸다. 이러한 정성에도 남편이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장례를 치른 후 독약을 먹고 남편의 뒤를 따른다.

여기서도 고씨의 죽음은 정절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님이 드러난다. 남편이 죽고 자신도 세상을 등지기 전까지 고씨는 일정 정도를 넘어서는 극한 슬픔에 야위어갔고,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그녀가 남편을 따라갈 것 같은 예감에 그녀를 감시하였지만, 고씨는 가족들을 속여 안심시킨 틈을 타 독약을 마신다. 가슴 찢기는 애절한 마음은 남편 장례 후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작품 곳곳에는 열부의 극대화된 슬픔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이는 대상인물의 행동이 정절 수호를 넘어 부부애의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가늠하게 한다.

(다) 허씨는 금구(金溝) 사람으로, 시집가서 사대부인 이승선(李承善)의 아내가 되었다. 무술년(戊戌年, 1658) 겨울, 승선(承善)이 병을 얻어 살지 못하자 허씨가 울부짖으며 기절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다음 날 밤, 달빛이 휘영청 밝은데, 홀연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돌이 있는 강변에서 들려온 것이었다. 상을 치르던 여러 사람들이 급히 가서 찾아봤는데, 허씨의 두 쪽의

신발이 강기슭 바위 위에 있었고, 그 방을 보니 장롱이 텅 비어있었다. 하루 후, 머리가 과도에 떠올랐는데, 몸에는 시집을 때의 옷이 입혀져 있었고, 완전한 것이 평상시와 같았다.<sup>15)</sup>

(라) 열부인, 급제한 두원(裴斗元)의 딸은 어려서 정숙하고 덕이 있었다. 시집갈 때가 되어 통덕랑 이하형(李夏衡)에게 시집갔으나,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병이 들어 심하게 되었다. 몸소 친히 탕약을 끓이고 밤낮으로 목욕재개하고 하늘에 빌기를 6년 동안 한결같이 하였다. 남편이 죽음에 친히 염습을 하였으며, 안치한 후 자결하고자 하였다. 시아버지가 그 뜻을 알고 사람을 시켜 곁을 지키게 하였는데, 어느 날 밤, 지키는 사람이 잠든 사이에 이불 폭을 찢어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 지키는 사람이 놀라 보호했는데 목숨이 끊어졌으나 곧 소생하였다. 장사지남에 미쳐 굴에 들어가 울기를 청하자 시아버지가 허락하였다. 그런데 자결할까 염려되어 손수 지시하여 가보았다. 산 아래에 이르자 곡하는 소리가 끊어졌는데 풀어헤쳐서 보니 이미 기력이 다하여 거의 죽어가고 있어, 어렵게 소생하게 되었다. 돌아와서 물과 미음도 먹지 않으니 시아버지가 위로하며 설명하기를, “현명한 며늘아가야, 늙은 시아버리를 생각하고 저 꿏덩이를 위해서 상이 끝나고 아이가 자랄 때를 기다린 후에 뜻에 따르려구나.”라고 말했다. 배씨는 강인하게 참아내며 명을 받들었고, 밤낮으로 빈소 옆에서 가슴을 치며 곡을 하였다. …… 옷 한 벌로 삼년을 지내며 끝까지 바뀌 입지 않았고, 온 몸에 혈흔이 있었으며 상처투성이였다. 상을 마치자 몇 말의 피를 토하며 죽었다.<sup>16)</sup>

15) 權相一, 〈烈婦許氏記事〉, 『清臺集』卷10. “許氏金溝人, 嫁爲士人李承善妻. 戊戌冬, 承善得病不救, 許氏號哭氣絕者累次. 翌日夜, 月色甚明, 忽聞呼天痛哭之聲, 自石所江邊來. 喪諸人急往尋覓, 許氏雙鞋留在江岸石上, 見其室, 籠盡空. 日後, 浮波頭, 而身著嫁時衣裳, 宛如平日.”

16) 權相一, 〈褒烈婦記事〉, 『清臺集』卷10. “烈婦及第斗元之女, 幼有淑德. 及笄, 適通德郎李夏衡, 未踰年, 夫得病沉篤. 躬親湯熨, 日夜齋沐祝天, 六年如一日. 及歿, 親執襲殮, 既殯, 欲自決. 舅知其志, 使人守其側, 一日夜, 伺人假寐, 裂衾幅自縊, 侍者驚護, 絕而乃甦. 及葬, 泣請臨穴, 舅許之, 慮其自裁, 手指以行. 及到山下, 哭聲絕, 解視則已氣盡將殞, 艱得救甦. 既返, 水漿不入口, 舅又慰解曰: “賢婦,

許烈婦의 사연을 기록한 (다)는 권상일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열부의 烈行이 비교적 단선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열부는 남편이 죽은 후 여러 번 울부짖고 통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절하기까지 한다. 이로 인해 우는 행동으로 표상된 열부의 슬픔이 그저 감정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차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 물품을 정리하여 장롱을 텅 비운 후 투신하였다는 부분은 죽음을 택한 자신의 선택이 단지 일순간의 감정 때문이 아님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투신할 때 입었던 시집을 때의 옷은 죽은 남편을 따라가는 마음이 혼인이 성사되었던 당시의 초심과 같다는 것을 상징하며 열부의 죽음이 남편에 대한 진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케 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라)의 裴氏 역시 남편이 병사하고 남편을 따라 죽음의 길로 들어선 인물이다. 그러나 배씨의 죽음은 앞서 살펴본 열부들의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 남편의 득병 후, 열부는 6년 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열부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편은 죽게 된다. 이후 열부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으나 시아버지의 간절한 설득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해 겨우 3년의 喪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배씨의 몸은 피와 상처가 가득했고, 상을 마친 후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는다.

이 작품에서는 남편에 대한 지극한 간호의 과정보다는 열부의 자살 시도와 그 후의 일이 중점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작품의 초점이 남편을 따라 죽으려는 열부의 뜻에 맞춰져 있는 듯 느껴진다. 하지만 3년의 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상처투성이가 된 열부의 모습은 그동안 배씨가 자신의 몸을 돌볼 여력이 없었음을 가늠하게 하고, 상을 마치자 몇 말의 피를

---

幸念老舅，且爲一塊血屬，待喪畢兒長，然後，惟意之從。”裴氏強忍聽命，晝夜搥胸呼哭於殯側。……一衣三霜，終不改着。遍體血痕，傷毀無餘，喪既畢，吐血數斗而逝。”

토하며 죽어 간 정황은 시아버지를 위해 슬픔과 이픔을 참아냈던 그간 가슴앓이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로 인해 남편을 따라 죽으려 했던 배씨의 행동은 단순히 유교적 도리를 따르려 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정에서 우러난 마음을 따른 결과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sup>17)</sup>

살펴본 바, 권상일의 작품들은 단순히 병에 걸린 남편을 따라 죽은 극단적 선택만으로 이들을 烈婦로 칭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남편을 살려내기 위한 동분서주나 죽음의 선택이 단지 부인네로서의 정절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짝은 부부애로 인한 것임을 드러내주는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는 데에 주력한다. 대상인물의 극대화된 슬픔에 대한 서술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히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 것을 숭양한 유교가치관의 평면적 결과물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眞情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이처럼 열부를 취재한 권상일의 작품들은 남편을 따라 죽은 그들의 죽음 자체를 선양하기 보다는, 시아버에 대한 여인의 사랑과 정성을 구현해 내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대상인물의 죽음이라는 결말이 남편에 대한 진정에서 우러난 자연스러운 흐름의 종착지임을 표현하는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 2) 직분 수행의 의지 力說 - 주군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주군의 기사는 총8편이며 그 중 6편이 절열을 이룩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書羅烈婦李事〉, 〈書烈婦景事〉, 〈張烈婦紀事〉, 〈書趙王氏事〉, 〈書蕭山汪氏二節婦事〉, 〈書婺源王吳節婦事〉가 그에 해당하는데, 앞의 세 작품은 죽음으로 지조를 지킨 烈行을, 뒤의 세 작품은 남편이 죽은 후 집안을 건사한 節行을 기록한 작품이다.

전자 중 〈서녀열부이사〉, 〈서열부경사〉는 명말청초 시기 청군의 침략이

17) 정난영(2020), 앞의 논문, 56쪽.

라는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죽음을 선택한 여인에 대한, 〈장열부기사〉는 남편이 죽자 주변을 조용히 정리한 후 자결한 채소 품팔이꾼에 대한 작품이다. 후자인 〈서조왕씨사〉, 〈서소산왕씨이절부사〉, 〈서무원왕오절부사〉는 남편이 죽은 후의 어려운 상황을 부각시킨 후 그러한 중에도 살림살이와 효도, 자식 교육에 매진하여 집안을 바르게 일궈낸 부인들의 공적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주군의 기사에는 인물의 상황과 지조 수호의 방식이 다양하게 포착되어 있지만, 그 婦德의 형상화 양상은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바로 인물의 삶의 여정이 ‘직분’의 충실한 수행임을 강조하는 서술방법이다. 이는 세 가지 방식으로 드러난다.

(가) 인미가 아이를 이끌고 또 어머니를 업고 울면서 거리로 나와 고개를 둘러 보니 검은 연기가 누대 기와의 틈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고, 화염이 위로 올라가 합해진 것이 휘감아 돌았으며, 바람소리와 잡스런 소리가 났다. 누판(樓板)은 탁탁 불에 타고, 사람들의 발이 어지러이 동동 구르는 것이 물 끓는 것 같아 들을 수가 없었다. 인미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부르짖었는데, 잠시 후 소리가 점점 사그라들었다.<sup>18)</sup>

(나) 다음 날, 부인은 딸을 육영당(育嬰堂)에 보내고 이들을 다른 집의 양자로 삼으니, 채원 사람들이 사사로이 말했다. “이는 빨리 시집가려는 것이다. 우리들이 야채 죽을 보낸 것은 며칠뿐이니 게을리 하지 맙시다.” 그러나 이때부터 보낸 야채죽을 부인은 사양하며 받지 않고 곧 문을 닫고 들어갔다. …… 34일이 지나도 문이 닫힌 것이 처음과 같으니 채원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며 말했다. “빨리 이갑(里甲)을 불러와서 함께 들어가 살펴봅시다.” 이에 이갑이 채원의 품팔이꾼을 거느리고 부르며 문을 열라 외쳤는데, 문 안이 적막하여 다투어 빗장

18) 朱筠, 〈書羅烈婦李事〉, 『筍河文鈔』卷2. “仁美挈兒且負母, 哭出巷, 回首, 見黑烟出樓瓦隙中, 火光上合之旋繞, 作拉雜聲, 樓板爆爆, 人足亂踏, 如沸, 不可聞.”

을 밀치고 들어가 보니 부인이 침상에 위태로이 앉아 말라 죽어있었다.<sup>19)</sup>

(가)는 명말청초 羅仁美의 후처인 李氏가 팔기군의 양주 침략 때 자식과 남편, 어머니를 피신시키고 여종을 포함한 집안의 부인들과 함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불을 놓아 자결한 사건을 담은 〈서녀열부이사〉이다. 주균은 우선 작품 앞부분에서 이 사건의 시종을 요약하듯이 평면적으로 서술한 후, 이어 인용문처럼 열부가 불을 지르는 장면에 주목하여 현장성을 구현하고 있다.

병사들이 들이닥치기 전 부인은 누대로 올라가 문을 걸어 잠근 후 불을 놓는다. 이후로는 불이 난 누대 안의 상황이 직접 재현되는 대신 외부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내부의 처절함이 전해진다. 검은 연기가 누대기와 사이로 피어오르다가 불은 점차 커져 화마가 되어 누대를 삼킨다. 이와 함께 누대가 불에 타는 소리가 묘사되는데, 바로 이 비밀상적 소리가 해당 장면에 사실성을 부여한다. 이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발 구름 소리가 불붙은 누대를 뚫고 나온다. 누대 안은 바깥세상과 단절되어 있지만, 그 속의 아비규환은 외부에 대한 묘사, 특히 강조된 청각 묘사로 인해 더욱 생생하게 시각화되고 있다. 또한 그 처절한 순간은 점차 잦아드는 소리, 즉 고평화로 수렴되며 충격은 더욱 배가된다. 열행에 대한 인물의 의지가 그 충격에 비견되며 그만큼 격렬하고 단호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남편이 病死하자 주변을 조용히 정리하고 따라 죽은 채소 품팔이꾼 張氏에 관한 일을 기록한 〈장열부기사〉이다. 남편이 죽자 장열부는 장례를 치르고 딸은 고아원에, 아들은 양자로 보낸다. 이른 본 사람들은 열부

19) 朱筠, 〈張烈婦紀事〉, 『筍河文集』 卷15. “明日, 婦送女於育嬰之堂, 以其子爲他家養子, 園中人私語曰: “此速嫁矣. 吾儕致菜糜, 數日耳, 願無懈.” 然而自是, 致菜糜者, 婦謝勿受也, 則閉門入. …… 至三四日, 門閉如初, 園中人詔相告曰: “趨呼里甲來, 共入, 覘之.” 於時, 里甲率園中傭, 呼啓門, 門中寂然 則爭排闥入見, 婦危坐榻上, 槁而死.”

가 빨리 재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장씨는 굶어서 말라 죽은 채로 발견된다.

어찌 보면, 남편이 죽은 후 굶어 죽는 장씨의 행동은 일반적인 열부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열부의 행동 의도와 정반대되는, 빨리 재가하려 신변정리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예측이 결과보다 앞서 서술됨으로써 열부의 餓死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남편 장례 후의 열부의 행동 목적에는 침묵한 채 결과와 완전히 반대되는 주변인들의 반응을 먼저 제시하는 방식은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도출한 인물의 의지와 실행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살펴본 바, (가)와 (나)는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 장면을 극적으로 구성하는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열행에 대한 인물의 의지가 더욱 단호하고 결연하게 느껴지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 지태가 붙잡혔는데 행복하지 않자 항주(杭州)에서 침수하고 가산을 적몰하게 하였다. 경씨가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 목을 댔는데, 안색이 살아 있는 것 같아서 집안사람들이 감히 염을 하지 못하고 시신은 당(堂)에 놓고 닳나무로 얼굴을 가지고 명을 기다렸다. 현에서 전사(典史)를 보내어 죽은 상태를 살펴보는데, 막 닳나무를 들추자 잠시 후 벽돌이 날아와 집 지붕 안쪽을 따라 떨어지며 전사(典史)를 쳤는데, 그 팔뚝을 정확히 맞췄다. 전사가 아파서 도망가면서 신음하며 외쳤다. “부인은 열녀로다, 부인은 열녀야!”<sup>20)</sup>

(라) 문료가 임종을 맞아 얼마 후 숨이 끊어졌으나 눈이 감기지 않았다. 오씨가 두 아이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울면서 “자식들은 어미가 있지만 감히

20) 朱筠, 〈書烈婦景事〉, 『笥河文鈔』卷2. “之泰被執, 不降, 斬於杭州, 令所在籍其家. 景聞之, 自經, 顏色如生, 家人不敢斂, 尸床在堂, 蒙面以楮, 待命. 縣遣典史, 來驗果死狀, 甫前啓楮, 頃有飛甍, 從屋梁上墮, 擊典史, 正中其腕. 典史痛反走呼, 晷曰: “夫人烈哉, 夫人烈哉!””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것처럼 하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으나 눈이 감기지 않음은 똑같았다. 오씨는 곧 스스로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며느리가 있지만 감히 아들이 살아있을 때처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니 바로 눈이 감겼다. 지금까지도 무원 사람들은 “문묘는 죽으면서도 그 부모를 보았으니, 아내가 있어서 눈을 감을 수 있었다.”<sup>21)</sup>

(다)는 명말청초에 청군에 끝까지 항거하다가 죽었다는 남편의 소식을 들은 부인 景氏가 자결한 후에 벌어진 기현상을 기록한 부분이다. 열부는 죽었음에도 살아있는 듯하여 염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를 살피러 온 典史가 얼굴 덮개를 들추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듯이 갑자기 벽돌이 날아와 전사의 팔을 친다. 그 후 “옥상의 벽돌은 전처럼 그대로였고 빠진 것은 하나뿐이었는데, 마치 사람이 훼손한 것 같았다.”<sup>22)</sup>라는 서술이 덧붙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기이한 일은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는 자신의 몸에 손 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열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는 남편 文燦가 병으로 임종한 직후 가족들에게 벌어진 일을 기록한 부분이다. 남편의 숨은 끊어졌으나 눈은 감기지 않았고, 이에 절부 吳氏는 자신이 있어도 자식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보다 더 아버지를 기억하고 조심해서 살아가게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여도 눈이 감기지 않자, 남편이 남은 부모님의 걱정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부모님께 더 잘하여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그제야 남편의 눈이 감긴다. 숨이 끊어진 남편이 눈을 감지 못했던 것은 바로 남겨진 부모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

21) 朱筠, 〈書婺源王吳節婦事〉, 『笥河文鈔』卷3. “文燦屬纊, 頃之氣絕, 目不瞑. 吳令兩孤跪, 而泣曰: “孤有母, 敢不使如有父.” 不瞑如初. 吳則自跪舅姑前, 泣曰: “婦在, 敢不如子在.” 卽瞑. 至今, 婺源人言: “文燦死, 猶視厥父母, 以有婦而獲釋視也.””

22) 朱筠, 〈書烈婦景事〉, 『笥河文鈔』卷3. “屋上甃故完好, 缺者一耳, 如人所毀.”

후 절부는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몸소 밭을 꾸리며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어머니가 병이 들자 자신의 팔뚝을 베어 드리며 병을 낫게 하는<sup>23)</sup> 등 성심을 다해 부모님을 모신다.

살펴보았듯이, (다)와 (라)에는 비현실적인 기이한 현상이 포착되어 있다. 그 기이한 현상을 만든 주체가 다르긴 하지만, 이 기현상은 모두 열부의 의지와 직접 관련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는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열부의 의지가 발현된 일이고, (라)는 죽음의 문턱을 이미 넘어간 남편이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려 한 자신의 의지를 절부에게 移越시키기 위함이었다. 막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여 깊은 상실감을 느꼈을 아내에게 이렇듯 기이한 남편과의 마지막 의사소통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남편의 의지는 이후 평생 아내 자신의 것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볼 《書趙王氏事》는 趙有慶의 측실인 王氏의 節行을 담은 작품이다. 왕씨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후사를 얻고자 자신을 팔아 그의 측실이 된다. 10년 후 남편이 죽자 목을 매어 죽으려 했는데, 이를 안 정실부인이 “당상에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계시고 아들은 어리며, 시아버지의 관에 아직 잔토가 남아있고, 남편의 빈소가 당에 있다. 너는 몸을 팔아 네 부모님의 장례를 지낸 것을 잊은 것이냐? 네가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니 이는 내 남편을 죽이는 것이다.”<sup>24)</sup>라며 왕씨를 말린다. 이에 왕씨는 잘못했다고 하며 정실부인과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봉양하고 아들을 끝까지 잘 길러낸다.

정실부인이 왕씨의 자결을 말리며 언급한 시어머니 봉양과 아들 양육,

23) 朱筠, 《書婺源王吳節婦事》, 『笥河文鈔』卷3. “暇則行屋後畦, 躬視畦菜, 春種萬芑, 秋蒔菘 周畦 半畝布種列行二百計. 吳則自抱甕行汲, 必周畦引水循行, 行徧漑而罷. …… 其年姑六十一而病篤, 吳驚計, 無所出, 則避人剖肱一臠, 投藥沸之, 謹以進姑, 姑病頓差.”

24) 朱筠, 《書趙王氏事》, 『笥河文鈔』卷2. “堂上有老姑而子幼, 先舅柩尚在淺土, 夫殯在堂, 若忘鬻身以葬若父若母耶? 若死, 我亦死, 是果死我夫也.”

시아버지의 제사, 남편의 장례는 모두 당시 혼인한 여인에게 기대하는 또는 주어진 임무이다. 따라서 정실부인은 왕씨의 죽음을 말리기 위해 그녀에게 아직 남아있는 임무를 상기시킨 것이다. 이에 왕씨는 급격한 태도의 변화를 보인다.<sup>25)</sup> 남편이 부재하여도 결혼한 여인으로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도리임이 환기된 이후, 남편을 잃은 슬픔이 집안을 건사해내겠다는 의지로 치환된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남편이 죽고 끝까지 집안을 건사했던 두 절부의 이야기가 담긴 〈書蕭山汪氏二節婦事〉에서도 발견된다. 汪楷의 계실과 측실은 남편이 객사하고 남편의 동생이 진 큰 빚을 갚으며 평생 시어머니와 아들을 보살피며 살아간다. 처음 남편의 관이 당도하고 집안의 빚을 알게 되자 두 사람은 “남편이 죽고 우리 두 사람 또한 죽으면, 남편의 어머니를 죽이고 남편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니, 아! 남편은 결국 죽은 것이 되는구나! 만약 우리 두 사람이 잠시 늦춰 죽지 않고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자식을 가르치면 남편은 아직 죽지 않은 것이다.”<sup>26)</sup>라고 하며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운다.

시아머니와 아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남편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라는 위의 발언에는 남편과 시부모, 아들을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 간주하고 있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이 결연한 언사는 부재한 남편 대신 집안을 잘 건사해야 하는 임무에 대한 확인이며 다짐이다. 이후, 두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서로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며 밤새워 비느질을 하여 수년에 걸쳐 빚을 갚고, 어머니를 지극한 효로 섬겼으며, 아들을 엄격하게 교육시킨다.<sup>27)</sup> 결국 두 사람의 이와 같은 치열한 삶의 여정은 남편 대신

25) 朱筠, 〈書趙王氏事〉, 『筓河文鈔』卷2. “妾過矣, 勉生佐夫人.” 於是, 朝夕侍嫡姚, 事姑, 無不當其意. 姑疾則藥物必嘗以進, 死則附身附棺必謹. 卒葬舅姑及夫如禮, 誨子有立. 乾隆三十三年(1768), 獲詔旌其門.”

26) 朱筠, 〈書蕭山汪氏二節婦事〉, 『筓河文鈔』卷3. “夫死, 吾兩人亦死, 卽死夫之母, 死夫之子, 嗟乎! 夫竟死矣. 若吾兩人緩須臾, 無死, 養姑而教子, 夫固未死也.”

집안을 건사하는 것에 대한 굳은 각오와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절열을 기록한 주균의 인물기사는 대상인물이 부인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보이는 의지를 강조하여 드러내는 데에 서술의 초점이 놓여 있다. 그만큼 인물의 행동에서는 단호함과 결연함이 묻어난다. 이는 장면을 극적으로 구성하거나, 비현실적인 기이한 현상에 주목하고, 말은 바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구현되고 있다.

#### 4. 맺음말

3장에서 살펴본 바, 권상일은 인물의 진정성을 강조하여 열행이 ‘성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 주고, 주균은 인물의 ‘의지’를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그들의 행동이 말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결과물이었음을 나타내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권상일과 주균의 서술 방식은 이처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에서 살펴본 절열에 관한 18세기 한중 인물기사의 몇 가지 특징 중 우리나라 작품에서 유난히 일관된 양상을 보이는 지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여성의 지조 수호 인정의 범위와 그것이 적용되는 시점, 즉 절. 열과 성혼에 대한 여부이다. 다른 특징들은 양국 간에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여러 경우가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작품에서 위

27) 朱筠, 〈書蕭山汪氏二節婦事〉, 『笥河文鈔』卷3. “天寒, 蒙裂縷屨百結, 齒嚙肌粟, 相與慰藉以溫. 或餅米見罄, 兩人輒互稱病不食, 令姑與子食, 而間咽其餘粒. …… 紅女手作之, 終夜有聲計竅, 楮鏹千百 用易錢, 作速且多者, 當一人之食 兩人所作日食 有餘錢則積, 以償負. 如是數年, 竟償叔模所負惡少錢, …… 輝祖或業不進, 母徐則撻之, 母王解之曰: “阿官一而已, 撻可已.” 母徐曰: “惟一而已, 不撻, 將吾族之圯也.” …… 兩人之事老姑也, 尤以孝著, 雖乏絕, 甘旨之味, 必力以供, 姑益篤. 老嗜螺蛸而甘.”

의 두 지점은 ‘혼인 후의 열행’ 쪽으로 극명하게 치우쳐져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이 두 지점이 우리나라보다 열린 경향성을 띤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권상일과 주균의 작품에서도 그대로 발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두 작품군에서 절열을 형상화하는 방식이 달리 나타나는 이유이다.

목숨을 버려 지조를 지키는 방식은 극한의 방법이기애 이러한 행위는 칭송하고 기릴만한 일이다. 혼인 후 열행에 치중한 권상일의 작품이 진정성을 강조하였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덕목의 사전적 정의는 ‘도덕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의 조목’이다. 결국 덕목은 인격에서 발현되는 것인데, 역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격은 타고난 성품에서 비롯된다. 곧, 타고난 성품이 바로 덕목을 완수하게 하는 본체인 것이다.

권상일 작품에 등장한 부인들은 혼인 성립 후 부부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시간을 보냈기에, 그들에게는 부부의 정이 존재한다. 그들이 지조 수호를 위해 죽음이라는 최극단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성품 위에 구축된 부부의 정이 있기에 가능했다. 다시 말하면, 권상일은 여성의 지조 수호를 덕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작품들에는 죽음을 통한 지조 수호를 가능하게 하는 본체인 마음의 진정성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했다. 결국 권상일 작품에 나타나는 이러한 서술 방식은 그가 여성의 지조 수호를 ‘덕목의 발현’으로 본 데서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주균은 열과 함께 절행의 가치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절행의 주의를 수절에만 놓여있지 않다. 수절과 함께 孀家를 여생동안 책임지고 부양하는 데에 초점이 놓여있다.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끝까지 살림을 이끌어 나아가야 칭송할 만한 절부로 인정한다는 것은 남겨진 부인의 집안 건사가 기릴만한 절행의 필수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그 행동들은 절부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리란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말한다. 주균은 절부

가 집안을 건사하는 것을 ‘마땅함’과 ‘행함’이 중시되는 도리로 보았기에 그것을 이룩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데 주력한 것이다. 또 3장에서 검토하였듯이 이러한 서술 방식은 열행을 담은 작품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 바, 주균은 여성의 지조 수호라는 행동 양식을 ‘도리의 실현’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살펴본 대로, 주균은 살아서 집안을 책임진 경우를 목숨을 버려 지조를 보인 여인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주균의 인식은 절열을 기록한 이 시기 중국의 인물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장 <표 2>에서 제시했듯이, 여기에 해당하는 중국의 인물기사는 총 19편인데, 이 중 9편이 절행, 10편이 열행을 담고 있어 주균의 작품처럼 절과 열의 비중이 비등하다. 이를 통해 보면, 그의 작품들은 이 시기 절과 열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중국 인물기사의 시선이 그대로 투사된 작품군이라 하겠다.

주균의 작품으로 대표되는 절열에 관한 18세기 중국 인물기사의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인다. 권상일의 작품들은 모두 죽음으로 지조를 이룩한 열행에 집중하고 있는데, 열에 대한 권상일의 이와 같은 집중도는 이 시기 절열에 관한 인물기사 전체의 그것과 같다. 2장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우리나라의 인물기사는 여성의 덕목을

28) 주균의 이와 같은 시선은 그의 작품인 <少婦周記事> (『簡河文鈔』 卷2.)에도 반영되어 있다. <소부주기사>는 남편을 독살했다는 누명을 쓴 新婦에 관한 작품이다. 절열을 기록한 6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여기에는 부인으로서 실현해야 할 직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신랑을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벗을 신부에게 수령은 “남편은 비록 죽었으나 돌아가서 너의 시부모를 잘 모셔 네 남편의 아들로서의 직분을 대신하라. (夫雖死, 其歸養爾舅姑, 以代爾夫之子職.)”라고 말한다. 남편의 죽음에 죄가 없으니, 혼인한 부인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끝까지 해 내라는 당부이다. 그 도리란 바로 시부모님의 봉양이다.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그의 아들로서의 직분이 부인에게 이양되며, 이를 수행하는 것이 부인이 남은 여생동안 행해야 할 도리임을 구체적으로 밝힌 부분이다.

기록한 11편 중 1편을 제외한 10편이 남편을 따라 목숨을 버린 열행에 주목하였다.<sup>29)</sup> 권상일의 작품들도 절열에 관한 이 시기 우리나라 작품과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상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장르인 우리나라의 인물전은 18세기 후반부터 절열에 관한 중국 인물기사처럼 절행에 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30)</sup> 인물전에서는 이 시기에 집안을 끝까지 건사하는 절행 또한 부인이 이룩해야 할 덕목으로 인정받으며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권상일이 열에만 집중한 것은 그가 18세기 중반까지 살았기 때문에 인물전에 보이는 이러한 양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러한 의문은 절열에 관한 우리나라 18세기 인물기사가 권상일의 작품처럼 모두 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해소된다. 이를 통해 보면, 인물기사는 절열에 관한 관념이 인물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상일로 대표되는 절열에 관한 이 시기 우리나라의 인물기사는 같은

29) 2장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시기 총 11편 중 1편은 절행을 기록하고 있다. 바로 성해응의 〈書李節婦事〉이다. 작품 말미에 “절부가 결혼하지 않은 것은 그 뜻을 지키려는 것만이 아니라, 대개 전구(糶裘)의 천함을 부끄러워 한 것이다.(節婦之不嫁, 非徒守其志也, 盖恥糶裘之賤也.)”라는 논평이 있는데, 이를 통해 보면 이는 이 시기 유일하게 절행을 기록한 작품이지만, 절행 그 자체보다는 청에 저항한 명나라 사람의 지조에 방점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서이절부사〉는 절행을 기록한 중국의 작품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0) 18세기 이후의 열 관념의 변화에 관한 대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강영숙, 「한국의 열녀전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10, 1~153쪽; 김유진, 「조선후기 열녀전 읽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303~337쪽; 박은정, 「李鈺 열녀전의 열 관념에 대한 소고」, 『동방학』 10,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4, 65~84쪽; 이대형, 「18세기 烈女傳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109쪽;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 연구」, 『성곡논총』 30, 성곡학술문화재단, 1999, 95~152쪽; 홍인숙, 「조선후기 열녀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97쪽.

시기의 한국의 인물전 및 중국의 인물기사와는 달리 썬을 숭앙했던 기존의 보수적인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절열에 관한 조선후기의 인물기사는 당대 변화된 사회인식을 기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한국의 18세기 인물기사가 인물·경험·서술 등의 측면에서 다채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렇다면 18세기 인물기사의 변화를 주도한 因子는 과연 무엇인가? 당대 변화한 사회인식은 절열을 형상화한 작품처럼 인물기사의 변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인가? 이 시기 인물기사의 변화와 당대 사회인식과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인가? 물론 절열에 관한 이 한 사례로 인물기사의 변화와 당대 사회인식이 연관성이 없다고 일반화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충효와 열을 기록한 작품들을 비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서사화 된 작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변화의 양상과 방향이 규명되어 18세기 인물기사의 변화를 이끈 모종의 문학적 요구가 선명해질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국내자료

- 姜彝天, 『重菴稿』, 韓國文集叢刊 續 111권.  
 姜再恒, 『立齋先生遺稿』, 韓國文集叢刊 210권.  
 權濂, 『厚庵集』, 韓國文集叢刊 續 76권.  
 權相一, 『清臺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續 61권.  
 金構, 『觀復齋遺稿』, 韓國文集叢刊 續 49권.  
 金命錫, 『雨溪文集』, 韓國文集叢刊 續 58권.  
 金椽, 『儉齋集』, 韓國文集叢刊 續 50권.  
 金昌協, 『農巖集』, 韓國文集叢刊 161~162권.  
 南鶴鳴, 『晦隱集』, 韓國文集叢刊 續 51권.  
 朴胤源, 『近齋集』, 韓國文集叢刊 250권.  
 睦萬中, 『餘窩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續 90권.  
 朴胤源, 『近齋集』, 韓國文集叢刊 250권.  
 朴趾源, 『燕巖集』, 韓國文集叢刊 252권.  
 裴行儉, 『三餘堂文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宋廷奎, 『海外聞見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徐宗泰, 『晚靜堂集』, 韓國文集叢刊 163권.  
 成大中, 『青城集』, 韓國文集叢刊 248권.  
 申光洙, 『石北集』, 韓國文集叢刊 231권.  
 申大羽, 『宛丘遺集』, 韓國文集叢刊 251권.  
 沈樂洙, 『恩坡散稿』, 서울대 규장각 소장.  
 安錫徹, 『雪橋漫錄』, 韓國文集叢刊 233권.  
 吳載純, 『醇庵集』, 韓國文集叢刊 242권.  
 俞晚柱, 『通園遺藁』, 서울대 규장각 소장.  
 尹光紹, 『素谷遺稿』, 韓國文集叢刊 223권.  
 尹拯, 『明齋先生遺稿』, 韓國文集叢刊 135~136권.  
 李家煥, 『詩文』, 고려대 도서관 소장.  
 李砬, 『嘉林二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李匡德, 『冠陽集』, 韓國文集叢刊 209권.  
 李匡呂, 『李參奉集』, 韓國文集叢刊 237권.  
 李萬敷, 『息山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178~179권.

- 李成全, 『新塘集』, 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  
李英裕, 『雲巢謾稿』, 서울대규장각 소장.  
李用休, 『惠寔雜著』,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李翼龍, 『樂山堂集』,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李載亨, 『松巖集』, 韓國文集叢刊 179권.  
李忠翊, 『椒園遺藁』, 韓國文集叢刊 255권.  
李夏坤, 『頭陀草』, 韓國文集叢刊 191권.  
李玄逸, 『葛庵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127~128권.  
任望, 『水村集』, 韓國文集叢刊 149권.  
蔡濟恭, 『樊巖集』, 韓國文集叢刊 235~236권.  
蔡彭胤, 『希菴先生集』, 韓國文集叢刊 182권.  
黃允錫, 『頤齋遺藁』, 韓國文集叢刊 246권.

#### 해외자료

- 江濬源, 『介亭外集』 卷1, 『續修四庫全書』 1453.  
劉大樞, 『海峰文集』 卷1, 『續修四庫全書』 1427.  
方苞撰, 『望溪先生文集』 卷9, 『續修四庫全書』 1420-1421.  
徐師曾, 『文體明辨』, 昨晨社, 1984.  
薛鳳昌, 『文體論』, 臺灣商務印書館, 民國六十六年.  
孫原湘, 『天真閣集』 卷43, 『續修四庫全書』 1487-1488.  
吳訥, 『文章辨體』, 『續修四庫全書』 1602, 續修四庫全書 編纂委員會, 2002.  
王元啓, 『祇平居士集』 卷23, 『續修四庫全書』 1430.  
李兆洛, 『養一齋文集』 卷19, 『續修四庫全書』 1495.  
莊述祖, 『珍執宦文鈔』 卷7, 『續修四庫全書』 1475.  
錢大昕, 『潛研堂文集』 卷22, 『續修四庫全書』 1438-1439.  
全祖望, 『鮚埼亭集』 卷35, 『續修四庫全書』 1428-1429.  
程晉芳, 『勉行堂文集』 卷4, 『續修四庫全書』 1433.  
趙懷玉, 『亦有生齋集』 卷12, 『續修四庫全書』 1469-1470.  
朱筠, 『笥河文鈔』 卷2,3, 『續修四庫全書』 1440.  
朱筠, 『笥河文集』 卷15, 『續修四庫全書』 1440.  
陳壽祺, 『左海文集』 卷8, 『續修四庫全書』 1496.

#### 단행본 및 논문

- 김경미, 「『열녀전』의 보급과 전개: 유교적 여성 주체의 형성과 내면화 과정」, 『한국문화연구』 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7, 51~82쪽.
- 강영숙, 「한국의 열녀전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논문, 2010, 1~153쪽.
- 김유진, 「조선후기 열녀전 읽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7, 303~337쪽.
- 김혜숙, 「傳·書事(記事)·野談의 대비적 고찰-상호연관성과 관련하여」, 『새터 姜漢永 教授 古稀紀念 韓國 판소리·古典文學研究』, 새터 姜漢永 教授 古稀紀念 論文集 刊行 委員會, 1983, 595~611쪽.
- 박은정, 「李鈺 열녀전의 열 관념에 대한 소고」, 『동방학』 10,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4, 65~84쪽.
- 박희병, 『韓國古典人物傳研究』, 한길사, 1992, 1~478쪽.
- 이대형, 「18세기 烈女傳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109쪽.
-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 연구」, 『성곡논총』 30, 성곡학술문화재단, 1999, 95~152쪽.
- 정난영, 「조선후기 인물기사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227쪽.
- 정환국, 「조선후기 人物記事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29, 한국한문학회, 2002, 291~320쪽.
- 조창록, 「朝鮮後期 ‘記事’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65쪽.
- 조창록, 「記事의 양식적 특성과 작품 세계」, 『동방한문학』 39, 동방한문학회, 2009, 7~26쪽.
- 진재교,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 韓國 漢文敘事樣式의 層位와 變貌 - 傳, 野談, 記事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0, 대동문화연구원, 2002, 101~135쪽.
-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1~402쪽.
- 홍인숙, 「조선후기 열녀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97쪽.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 articles of Korea  
and China in the 18th Century  
- Focusing on the works of Kwon Sang-il  
and Zhu Hyeon, who intensively covered 節·烈

Jeong, Nan-young\*

This paper was planned as part of a study to understand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character articl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the 18th century, when character accoun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showed various changes, Kwon Sang-il and Joo Gyun, literati in Korea and China, intensively covered 節·烈.

Kwon Sang-il's character stories record women who chose to die after their husbands died. Joo-gyun's works have a mixture of 烈行 and 節行.

The fact that Kwon Sang-il's works emphasized sincerity stems from the fact that women's fidelity and protection are regarded as 'the manifestation of virtue'. On the other hand, the fact that Joo Gyun emphasized the character's will is the result of looking at the behavioral style of women's 志操 protection from the dimension of 'realization of duty'.

On the other hand, all the works related to 節烈, starting with Kwon Sang-il, are selecting characters from the existing conservative point of view, which venerated the woman who gave up her life. This is a different aspect from Korea's Inmuljeon or China's character articles of the same period, which also recognized the value of 節烈. Also, this is contrary to the 18th century Korean character articles accepting various changes in terms of characters, experiences, and descriptions. In the end, it can be seen that Korean character writers of this period still maintained a conservative view on the behavior of a wife.

---

\* Dongguk University Lecturer

**Key Words**

Article, Character articles, 節婦, Virtuous woman, Kwon Sangil, Joo Gyun, Virtue, Duty

논문투고일: 2023.03.24.

심사완료일: 2023.04.30.

게재확정일: 2023.05.04.